

서구, 임신부 지원 복지정책 적극 추진

매월 건강상담의 날 운영

예비엄마교실서 각종 교육

광주시 서구가 임신부 건강상담의 날과 예비엄마 건강교실 운영에 들어가는 등 출산 친화적 복지행정에 나선다.

서구는 오는 29일을 시작으로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을 임신부 건강상담의 날로 정하고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보건소를 방문하는 임신부를 상대로 건강상담을 해준다고 26일 밝혔다.

서구는 임신부 건강상담을 위해 보건소 의사 2명과 출산 장려팀 공무원 3명을 순환 근무로 편성하고, 연말까지 운영을 이어간다.

서구는 보건소 방문 임신부에게 엽산

제나 철분제도 지원한다.

서구는 또 27일부터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에 '예비엄마 건강교실'도 개최한다.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임신부들을 대상으로 열리는 '예비엄마 건강교실'에 참석하면 전문 강사로부터 모유수유 방법과 신생아 마사지 방법, 임신부 요가, 아기 용품 만들기 등을 배울 수 있다.

서구보건소 관계자는 "병원 갈 시간 못 내는 직장 여성들을 위해 이따부터 야간 임신부의 날을 운영한다"며 "직장 여성들의 건강한 출산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의는 서구보건소 출산장려팀 350-4137.

서구/김정호기자 khh@kwangju.co.kr

광주 엠마우스복지관 최우수기관 선정

복지부 복지관 154곳 평가

여수시장애인복지관 '미흡'

우수한 품질의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 복지관이 최근 장애인 활동 지원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올해 최초로 장애인복지관과 사회복지관 154곳을 대상으로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정기 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광주 엠마우스 복지관 등 상위 10%에 해당하는 15개 기관을 최우수 기관으로, 평가 점수가 90점 이상인 85개 기관을 우수 기관으로 선정했으며 이용자 만족도가 매우 높은 35개 기관을 수급자 만족도 우수기관으로 따로 선정했다.

우수등급 선정된 기관은 모두 85곳.

이중 전남은 광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문수종합사회복지관·보성종합사회복지관·쌍봉종합사회복지관·해남군장애인종합복지관 등 5곳이다.

반면 미흡 등급 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전국에서 단 한 곳으로 여수시장애인종합복지관인 것으로 파악됐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란 복지관 등에 소속된 활동보조인이 서비스를 신청한 장애인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을 돕는 것을 말한다.

현재 복지관을 비롯해 자립생활센터, 지역자활센터 등 약 723개의 활동지원 기관이 해당 서비스를 운영 중이며 복지관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은 올해와 내년 에 차례로 평가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에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복지관 15곳에는 서비스 품질 우수기관 인증마크와 소정의 상금이 지급된다.

이중행기자 golee@kwangju.co.kr

동구, 인사축하 화분 판매 수익금 기부

장애 모녀가정 집수리 지원

광주시 동구 소속 공직자들이 최근 정기인사에서 받은 축하 화분을 되팔 수익금을 모녀가정 집수리 지원금으로 전달했다.

27일 동구에 따르면 공무원들은 이달 초 정기인사에서 축하 화분 250개를 받았으나 이웃 사랑을 실천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이를 (사)광주재능기부센터에 전달했다.

(사)광주재능기부센터는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화분 판매 행사를 열어 200만

원의 수익금을 모았다.

(사)광주재능기부센터는 지난 19일 광주시 동구 소재동에 사는 정신장애 모녀 가정세대 집수리 지원금으로 전달했다.

광주시 동구 임영일 구청장 권한대행은 "이번에 모든 직원들이 솔선수범하는 마음으로 이웃 사랑 실천에 나서셨는데, 너무 뜻깊고 고맙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모든 공직자들이 구청 발전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역량을 결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중행기자 golee@kwangju.co.kr



국내 가정식 어린이집 10곳 중 8곳 이상은 원장이 직접 통학차량을 운전할 정도로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 중 특정사실과 관련 없음. <광주일보 자료사진>

가정어린이집 83% 원장이 통학차량 운전

보육·요리까지 담당...업무과중에 안전사고 우려 2009년부터 5년간 차량사고로 421명 사망·부상

국내 가정식 어린이집 10곳 중 8곳 이상은 원장이 직접 통학차량을 운전할 정도로 인력난에 허덕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교육을 총괄담당해야할 원장이 차량운전까지 하게 되면 원생들의 통학 안전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육아정책연구소의 '유치원·어린이집 운영 실태 비교 및 요구 분석' 보고서에 보면, 등·하원 차량을 운행하는 어린이집은 60% 정도로 조사됐다.

설립유형별로 보면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95.5%, 법인·단체 어린이집은 86.8%, 민간어린이집은 83.6%가 차량을 운행해 상당히 높은 비율을 보였다.

다.

반면 직장어린이집은 11.1%, 가정어린이집은 39.3%, 국공립어린이집은 42.6%가 차량을 운행하고 있어 평균보다 낮은 운행 비율을 나타냈다.

어린이집 차량 운전 담당자를 살펴보면, 원장 26.5%, 교사 1.4%, 전문 운전기사 68.5%로 나왔다. 운전기사가 차량운전을 담당하는 비율이 70%를 밑돌고, 원장이 직접 운전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았다.

특히 시설유형별로는 국공립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 법인·단체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등은 원장이 직접 운전하는 경우가 전혀 없거나 비율이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가정어린이집은 원장이 직접 운전대를 잡는 비율이 82.8%에 달했다. 가정어린이집 원장 대부분이 차량운전을 담당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정어린이집 원장이 보육교사 및 요리까지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업무 과중이 안전뿐 아니라 보육의 질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육아정책연구소는 "일인다역을 하는 가정어린이집 원장의 처지를 볼 때, 적어도 아동의 집 가까이 있는 도시지역 가정어린이집은 차량운행을 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는 만큼, 점진적으로 차량을 운행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정치민주연합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이 지난해 10월 공개한 교육부의 '어린이 통학차량 2차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로 숨지거나 다친 어린이는 모두 421명(사망 61명)에 달했다.

또 어린이 통학차량 중 절반 가까이 가 미신고 차량이며 특히 학원이나 체육시설 차량의 경우 대부분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신고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5만161개 시설의 어린이 통학버스 6만7363대 중 경찰서에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신고된 것은 3만7409대(55.5%)였으며 미신고차량은 2만9954대(44.5%)였다. 2대 중 약 1대 꼴로 미신고 차량인 셈이다.

특히 어린이집의 경우 전체 차량의 98.6%가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신고됐으나 학원의 경우엔 전체 차량의 7.1%, 체육시설은 5.4%의 차량만이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신고돼 극히 저조했다. 학교와 유치원의 통학차량 신고율은 각각 75.3%, 53.6%였다.

이중행기자 golee@kwangju.co.kr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백명숙 이사, 유경선 원장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시까지...

중매 잘한다~ 성사 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광주 서석초등학교 졸업,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고, 한국도로공사 다년재직)

서울대학교총동창회 결혼정보서비스업체

초혼	추천 회원	재혼
남 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 27-45세 판사, 검사, 변호사, 회계사 28-47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 삼성, 현대, LG 직원 28-47세 은행원, 연구원 29-49세 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 사업가, 자영업 29-39세 세무사, 연구원 29-48세 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 교사, 교수 28-49세	여 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 오케스트라단원, 회사원 26-41세 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 의사, 약사, 교사 25-39세 변호사, 회계사, 변호사 26-39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 간호사, 은행원 26-47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7-42세 스타디스, 영양사 26-42세 미스코리아, 미스전북 27-36세	남 의사, 변호사 32-65세 국영기업체 기관장 52-66세 공무원, 교사, 교수 35-65세 대기업 간부 36-59세 회사원, 자영업 33-67세 '무출산 여성' 희망 31-58세
여 VIP 희망 여성 29-53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7-63세 공무원, 교사 32-58세 간호사, 회사원 29-48세 자영업, 가사 35-64세 '무자녀 남성' 희망 28-48세		

임페리얼 클럽

강남역 7번출구 70m 하나은행 B/D 6층

02) 521-4405

호남지사 (063) 275-7766

옥상·외벽·내벽·주택 전문 방수 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미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면은 깨끗이 물 청소하시고 로리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침무성,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기나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역사와 전통의 **미화표**를 꼭 확인하세요...

ENG. 이앤지 방수, 바드재 전문생산업체

이앤지 방수주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동성동 660-29